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직원, 고향사랑기부 실천

✎ 정병철 기자 | Ⓜ 승인 2026.04.02 14:17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일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직원 약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발전과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주현 합천지사를 비롯해 김찬중 농지은행 관리부장, 김상원 총무담당장이 참석해 기탁식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참여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300만 원, 2025년에는 173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헌 지사장은 “직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의 꾸준한 참여와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합천군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4%, 20만 원 초과분 16.5%)와 함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특산물)을 제공받는 제도다.

한편, 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정병철 기자 jbc6768@newsgn.com